

정부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최종반영 '환영'

전북상공회의소협 등 도내 상공업계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도내 상공업계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된데 대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10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가 오랫동안 많은 공을 들여온 새만금 국제공항이 추진이 확정된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 기업인들은 새만금 신공항이 새만금 내부개발의 가속화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의 본격 가동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면서 "이번 반영으로 전북에 새로

운 도약을 위한 다짐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특히 이번 새만금 신공항의 국가계획 반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세계잡버리 대회 및 대규모 국가 행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선홍 회장은 "앞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새만금 공항 건설 정부 반영으로 SOC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전망된다.
예컨대 이번에 고시된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 항공여건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공항개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국내 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별 새로운 수요증가에 걸맞는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는데 초점을 뒀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선형불량 구간과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 잦은 구간, 교통애로구간 용량증대를 위한 시설개발 사업 등 기획재정부 추가 검토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광영 기자



건강식 낫도, 저렴하게 이마트가 10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타카노 낫도'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전국 점포에서 일반 낫도 판매 1위 브랜드 '타카노 낫도'를 국내 최저가인 2,450원(50g3/팩)에 선보인다.

1분기 통합·관리 재정수지 모두 적자

세금 더 걷혀 적자폭은 전년비보다 다소 줄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등 확장 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앙정부 총수입은 103조 400억원, 총지출은 117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9조2000억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조

5월 16일~6월 24일 중부고속도로

장수JCT~무주IC구간 '포장보수'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문병국)는 오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중부고속도로 장수JCT~무주IC(통영방향) 구간 포장보수를 위해 1개 차로씩 교대로 주·야간 통행을 제한한다.

이번에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장수JCT~무주IC 구간 중 포장 노후화 및 포장파손이 심한 통영방향 7.7km구간이다.
공사 중 1차로 작업을 할 때에는 2차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2차로를 작업 할 때에는 1차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신속히 완료해 그 동안 이용객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작업 구간에 P&M호백, 로보신호수 등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관할 고속도로순찰대와 협조해 운전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사 중 이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전방주시와 감속운행 등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내일 전주 실내체육관 '그랜드 취업박람회'

2300여명 채용 예정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평훈)은 오는 12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2016 전주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등 3개 기관 공동으로 개최하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고용문제를 해소하고 중·장년층 구직자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와 취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박람회는 (주)세이베스틸 (주)하림 (주)대우글로벌전주지점, 페이퍼코

리아(주) 등 우수 인재를 선점하려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등 총 40개 기업이 오프라인 현장에 참여해 직원 2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서류전형·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게 된다.
취업박람회 현장구성은 청년채용관, 중장년채용관을 비롯하여 구직지원관, 일자리정책홍보관, 이벤트관, 직업체험관, 직업선호도검사관 등 매우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구직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관, 이력서용 무료사진촬영관 및 온라인 입사지원을 위한 일자리정보검색관, 청년층

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창조창업관 등이 운영된다.
현장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행사당일 단정한 옷차림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여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고용센터(063-270-9139) 또는 박람회 사무국(063-280-47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평훈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 도 지역경제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우리 지역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 기회를 얻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한국농어촌공 전북본부, 농지은행사업비 조기지원

약 885억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김학원 본부장)는 2016년 농지은행사업비를 조기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농업인에게 조기 지원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된 영농생활 기여를 위해서다.
현재 약 885억의 농지은행사업비가 확보된 상태며 사업별로는 농지규모화사업(농지매매, 임대차) 413억9,100만원, 과원규모화사업 23억400만원, 경영회생지원사업 317억7,500만원, 농

지매입비촉사업 112억7,600만원, 농지연금사업 28억500만원과 농지임대수탁사업 1,194ha, 경영이양직불사업 141ha 등이다.
농지매매 사업은 이율 1% 과원규모화 사업은 2%의 이율을 적용지원하게 된다. 농지연금은 지난해부터 농지소유규모가 3ha이하 요건이 폐지됐고 가입대상도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자율도 2.5%에서 2%로 인하됐다.
경영회생지원은 농지매입 임대기간

을 10년으로 동일화했고 부분환매 및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개선했다.
농지임대수탁 수수료는 기존 8%~12%에서 5%까지이며, 농지매입비촉과 농지임대차사업의 보증보험가입금액은 올해부터 140%에서 120%로 변경됐다.
신청접수는 각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부에서 가능하다.
김학원 본부장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홍보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은행 비즈클럽 정기총회

도내 CEO 80여명 참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0일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웨딩홀에서 도내지역 중소기업 CEO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2016년도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클럽활동에 적극적인 우수분회와 우수회원들 시상에 이어 에르메네지오제나코피아의 조성기 이사를 초청하여 비즈니스 성공 에티켓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은 지역 내 오피니언리더로 구성된 중소기업체 CEO 1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은 클럽활동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내 나눔행사와 더불어 회원간 친목, 화합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명실상부 지역 최고의 명문 클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도 비즈니스클럽 회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아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반관계 및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생활용품업계 '실적 약진'

2분기도 성장세 기록 전망

락앤락 코웨이 등 생활용품 전문가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2분기 실적도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락앤락은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104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30.8% 증가한 13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84억6500만원으로 147.2% 증가했다.
락앤락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중국 온라인 매출 증가에 따른 중국 내수 매출 증가와 한국 수출 및 동남아 내수 매출이 증가한 데 있다.

이같은 락앤락 측은 "2분기에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다. 2분기에 이차, 결흔 등 실패할 일이 없을 만큼 안정적인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국 쪽 온라인 매출 증가세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힌다.

코웨이는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6237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해 123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52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회사 측은 이같은 실적 호조를 두고 역대 1분기 최대 렌탈 판매량 달성, 안정적 제품 해약을 관리, 주요 해외 법인 성장세 유지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성주 기자

순창종합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